



**백세미 생산의 문제
종계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자**

무릇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원칙과 의리를 저버리기 쉽다. 이익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원칙과 의리를 따른 사람을 보고 “의인이다”, “성인이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무조건 원칙을 위해 자기 이익을 버리기란 쉽지가 않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백세미(갈색산란계 암컷에 육용종계 수컷을 교잡)의 생산과 관련하여 무엇이 자기 이익이고, 원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백세미용 병아리 생산시 갈색산란계도 엄연히 종계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거두절미하고 종계라면 기초 종계가 갖추어야 할 여타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종계업 등록시 종계검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백리 검색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추백리 발생 때문에 전량 종계를 도태해야 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지만 양계업을 위해 쓰린 속을 가다듬으며 의리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백세미는 종계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다 홀가분한 상태에서 병아리를 생산하여 자가사육(판매용이 아님)이 아닌 판매용으로 버젓이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삼계탕을 만들어 수출한다는 명분만 앞세워 면책특권을 부여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 결과 산란실용계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질병에다 육계 질병이 혼합되어 양계질병을 모두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계사를 유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추백리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계업 등록도 하지 않고, 생산보고도 생략되어 있어 수급계획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인 셈이다.

육용병아리 가격이 높을수록 백세미 생산은 근절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근절이 어렵다면 차라리 백세미 사육농가도 종계에 준해서 생산관리를 철저히 규정에 따라 사전·후 관리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며, 불이익도 함께 돌아온다는 만고의 진리를 되새겨볼 일이다.

마치 백세미를 생산하여 사육하는 것 자체를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애국(愛國)적인 환상으로 몰고 가다 보면 양계업을 떠받드는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상기했으면 한다.

**도계장 HACCP제도 정착
빠를수록 좋다.**

닭고기를 먹는 입장이 아닌, 만들어 공급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이라면 으레 한마디씩 한다. 무슨 말인지는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먼저 위생적인 깨끗한 닭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닭고기는 왜, 비위생적인 처리과정을 거쳐도 유통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

는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가 없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을 모두가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닭고기가 버젓이 나돌아 다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원칙은 깨끗한 닭고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래에 있어서 마진을 가장 많이 챙기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 비위생적인 닭고기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책임이 크다.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과 유통을 위해 처리 기준을 만들지만 할 것이 아니라 기준대로 생산이 안되는 도계장이나 유통업자를 규제하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도계장에 위생 닭고기 운운하며 처리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비위생적인 닭고기의 기준을 제정하여 이들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행정력 강화가 필요하다. 여러해 경험한 바와 같이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라인을 위해 시설을 갖추는 곳만 비용이 상승하여 경쟁력이 없게 만드는 행정규제의 반복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내년 7월이면 도계장 HACCP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가급적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도계장의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닭고기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원종계 농장에서부터 종계, 실용계 농장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사양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질병으로 폐사율이 20% 이상을 넘는다면 아무리 도계장에서 위생적으로 완벽한 처리를 한다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수입 닭고기가 홍수처럼 반입되고 있다.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 수준이라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가격 경쟁력에서 뒤져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육

계산업은 기반붕괴의 위험마저 안게 된다.

우리 육계업계에 놓인 함정은 코 앞에 있는데도 육계인들이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비켜갈 마음의 준비보다는 높은 육계값, 병아리값에 매료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정말 이대로 육계업이 지속된다면 희망은 커녕 당장 未伏 이후의 후유증으로 황폐해 지지 않을까 안타까움 뿐이다.

서서히 우리나라 육계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과열된 입식열기를 한발자욱씩 거두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갔으면 한다.

산란중계 과잉입식 결과가 우려된다.

금융위기 직후부터 양계산물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소비가 잘되어 그렇다면 환호성을 낼 일이지만 동업자들의 무수한 부도나 조기도태, 입추포기의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였으니 흠족함 보다는 씩씩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산란중계의 연간 입식량은 55만수 안팎이었다. 지난 1997년에도 중계입식이 58만수를 상회하여 1998년 6월경까지 산란실용계 가격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였다.

불행히 금년 1월에도 12만수가 입식이 되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매월 입식량이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채란업계의 고민은 과잉입추보다 질병 발생에 있다. 입식량이 많아 계란가격이 나빠질 것

으로 분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란가격은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채란농기들은 중계의 과잉입식에 대해 큰 우려보다는 병아리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젖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교체되는 산란계는 대략 3,500~3,700만수 규모라 볼 수 있다. 월 300만수가 되는 셈이다. 이 규모가 잘 유지되다가 금년 9월부터는 월 400만수대에 육박하는 과잉공급의 소지를 안고 있다. 30% 이상의 과잉이 예상되는 셈이다.

산란실용계 생산은 중계·부화장이 하는 만큼 우선 해당 업체들이 나서서 입란 조절을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병아리가 생산되면 이유야 어쩔든 실용계 농장으로 전량 입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 실용계 농장들은 노계 교체를 제때에 하지 않아 병아리 가격이 내려가면 소나기 식으로 입추를 서두르게 뻔한 이치이고, 입식이 적정량보다 30% 이상 많아지면 5개월 후 계란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채란업계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입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병 발생이 많아 입식량이 많아도 난가와 상관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은 업계를 어둡게 할 뿐이다. 1년 이상 고난가를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원중계 농장, 중계 농장, 실용계 농장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을 한다면 2000년 상반기부터 채란업은 저난가에 장기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하는 것이 재난을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양계**